FX Market Daily

2025-06-17

전일동향

전일대비 5.80원 하락한 1,363.80원에 마감

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80원 하락한 1,363.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0원 하락한 1,368.00원에 개장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증시 강세 및 네고 물량 유입 등에 환율은 낙폭을 확대하며, 1,363.8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5.9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8.00	1368.60	1353.00	1363.80	1363.60
엔화	950.51	951.60	937.81	941.96	-
유로화	1580.92	1582.70	1565.57	1576.40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5	-7.07	-15.77	-30.56
결제환율(수입)	-1	-6.2	-13.91	-27.1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지역 갈등 종식 기대에...1,35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63.80) 대비 5.00원 하락한 1,356.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지역 갈등 종식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심리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 및 이스라엘과 핵 협상 및 휴전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의 휴전 제안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했다. 다만,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휴전 제안을 가짜 협상으로 일축하며, 추가 공습 의지를 밝혔다. 국제유가는 하락분을 반납하며 다시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했다. 달러화는 이란-이스라엘 상황 등에 보합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중동 갈등 종식 기대를 반영하며 다우지수 +0.75%, S&P +0.94%, 나스닥 +1.52%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달러 보합 흐름에도 뉴욕증시 상승 마감 등의 영향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증시 강세에 따른 외인 매수세 등은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52.40 ~ 1362.4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224.01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00원↓
- ■ 美 다우지수 : 42515.09, +317.3p(+0.75%)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1.32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85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